



서른다섯번째 이야기

Dave, 그는 누구인가?

비오는 수요일팀은 날씨가 꺾었던 12월 10일 BEE World의 새로운 총재인 Dave Semmelbeck 선교사님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요일 이촌동에서 조용한 커피숍을 고른다는 것은 난이도 최상급의 과제였다. 결국 여러 곳을 들락날락 한 후에야 그나마 괜찮은 곳을 찾았다. 여기저기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 잘 안 들리는 가운데에서도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만남 역시 은혜가 있었다. 아마도 동일한 사역을 하며 동일한 곳을 바라보기 때문이리라.

Dave Semmelbeck 선교사는 2016년부터 BEE World 총재로 섬기고 계신다. 태국을 방문하는 길에 잠시 한국에 들렀을 때 12월 11일에 있는 Blessing BEE Korea에서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런데 우리

Dave 선교사님께서는 비행기표 변경이 안돼 태국에서 일을 마치고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귀국하셨다. 그러곤 Blessing BEE Korea에 참여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다시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매하시고 귀한 걸음을 해주셨다. 총재님의 헌신적인 섬김 덕분에 이번 Blessing은 훨씬 더 풍요로울 것 같다.

그는 1959년생으로 조 선교사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본인이 몇 달 먼저 태어난 형이라고 우기신다. (물론 웃으며)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아름다운 부인 Penny와 35년째 살고 계시며 결혼한 두 딸(Jessica, Kate)과 4명의 손주가 있다. 20여년 텍사스에서 목회를 한 후 2008년에 BEE에 합류하셨다. 첫 해외 사역지였던 중국을 시작으로 중동, 파키스탄 등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셨다. 중국에서는 아파트 중 한 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소음을 내서 경찰이 집집을 뒤지고 다닐 때 우연히 걸려서 추방당했다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도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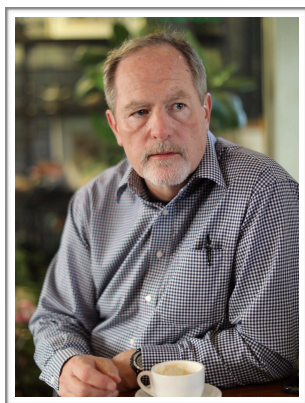
BEE의 매력으로는 성도들을 위에서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세워가서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BEE Korea는 BEE World와 형제, 자매 같이 생각한다고 하셨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격려를 받고 우리의 비전을 통해 고무된다고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지금처럼 계속 전진하라고 응원해주셨다. 특히 우리가 BEE World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 많은 감사를 표현하셨다. 우리에게 해 줄 충고가 있는지 문자 차세대를 세우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도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오랜 기간 해외에 나가 사역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역자와 전임 선교사를 세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우리의 강점은 '구조'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고, 그들의 강점은 '유연성'인데 이것 또한 동시에 약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이야기 하는 동안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섬김'이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도 섬김의 모델이 되는 구절인 빌립보서 2장 3, 4절이다.

자신의 삶을 평가해 달라 했더니, 그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He'가 하시는 것이라며 질문한 나를 뽀죠히게 만드셨다. 역시 정답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 다음 질문을 하면서도 내 머리 속은 나에 대한 'He'의 평가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16살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시며 그 후의 삶은 보너스라고, 그리고 그 보너스는 무지하게 크고 값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보면 나도 이미 받은 것이라 덧붙일 질문이 없었다.



요사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총재는 시리아를 예로 드셨다. 요즘에 시리아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고 있는데 그들은 벌써 이슬람이 참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현재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이제 유일하게 남은 답은 예수님뿐이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보면 도리어 너무 풍족하고 부족함과 간절함이 없는 상황이 참된 구원자를 만나는 기회를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겠지만 풍족함은 절실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BEE의 많은 과정 중 가장 좋아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BEE World의 총재의 자리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도 하셨다. 자신을 위한 기도의 부탁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희뿌연 하늘에, 밖에는 진눈깨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은 날씨였지만 인터뷰를 끝낸 나의 마음은 온통 햇살 가득한 따뜻함과 평온함으로 충만해졌다. BEE를 만난 것도, Dave 선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도 나에게 'He'가 주시는 큰 선물이자 그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으리라...(글: 한숙영, 편집: 이경주)

BEE 소식

- 11일 두란노홀에서 120여 비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Blessing BEE Korea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우리의 표어는 '세대를 넘어 (Passing the Torch)'입니다. 차세대 크리스천을 양육하는데 적합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Blessing BEE Korea]

감사와 찬양이 넘치던 순간들



신임사역자님들 축하드립니다.



왼쪽부터 (사-사역자, 훈-훈련사역자)
 박덕심(사) 김명수(사) 강필선(훈) 김명신(훈)
 양계성(사) 이미림(사) 문혜란(훈) 김승규(훈)
 이미정(사) 장필모(사) 박승선(훈) 이규인(훈)
 장영호(사) 강기형(훈) 이희선(훈) 홍성희(훈)

세대를 넘어(Passing the Torch)

